



12면

부안군, 자연·문화유산 '잘 나가네'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0년 3월 23일 월요일 (음 2월 29일) 제250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전북도, 어촌뉴딜사업 '속도전'

예산 271억원 긴급집행...어촌경제 피해 최소화 도내 14개소 어항·어촌 특화 자생력 강화 탄력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긴급추경을 편성에 신속 집행에 나선 가운데 수산분야 최대사업 중 하나인 '어촌뉴딜300사업' 추진에도 과감한 속도전을 펼친다.

도는 코로나19가 어촌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이번 긴급 추경 예산을 통한 어촌뉴딜300사업에 2020년도 예산 총액 대비 69.3%에 달하는 국비 226억원을 비롯해 도비 45억원 등 모두 271억원을 편성해 관행을 깬 신속한 집행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관개선, 지역 소득증대 사업 등이 지원된다.

도는 현재 2019년 사업지 5개소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마무리하고 올해 연말까지 포구정비, 마을환경개선 등의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2020년 사업지 9개소는 조속하고 속

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통한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지역협의체의 의견을 반영해 생활밀착형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진행 중에 있다.

도는 지난 2개년간 이 공모사업에서 전국 최고의 선정율(63.6%)을 기록하고, 사업비도 1,516억원(2019년 580억원, 2020년 936억원)을 확보해 도내 수산분야에서 역대 최대의 국가예산을 확보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양수산 대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 2021년 공모에도 14개소, 1,325억원을 신청할 계획이

다.

최재용 도 농축수산물품목장은 "어촌뉴딜 300사업이 도내 어촌·어항의 특화개발을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사업이어서 주민협의체와 함께 공모사업에 더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며 "코로나19가 민생·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전북도가 선제적으로 어촌뉴딜 300사업 예산도 긴급 추경 예산에 편성해 조기 집행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일자리창출 우수기관 선정' 지난 20일 전북도청 정부무지사에서 진행된 '2020년 일자리창출 우수 시·군 평가'에서 완주군과 고창군이 최우수 기관으로, 군산시와 순창군이 우수기관으로 각각 선정됐다. (관련기사 3면)

조만간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올 국비 120억원도 즉시 해당 시군으로 교부해 2020년도 투입액 391억원의 어촌뉴딜 300사업 집행에 속도를 더한다는 방침이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가기 쉽고, 찾고 싶고, 활력 넘치는 '혁신어촌' 구현을 위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개발을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으로 전북은 지난 '19년 5개소, '20년 9개소 등 모두 14개소가 공모에 선정돼 자생력 강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어촌뉴딜300사업 공모에 선정된 곳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 관련이 있는 기항지 개선, 어항시설 정비, 지역특화시설, 경

전주시, 일 끊긴 공공일자리 인건비 '先 지급·後 보강'

향후 보강근무 전제... 생활안정 보탬·소비시장 활기 기대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 참여자 1만 여명의 생활안정을 위해 인건비를 먼저 지급하고 향후 보강근무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처럼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에게 인건비를 우선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불안했던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역 내에 돈이 돌면서 위축돼 있는 소비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예상된다.

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근무기간이 한정된 비정규직 신분인 사업 중단에 따른 지원이 사실상 없는 만큼 사업 재개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향후 코로나19가 진정국면에 들어가고 일자리사업이 재개되면 보강근무를 한다는 전제로 이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우기 위해 인건비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취약계층 5만명의 긴급 생활안정을 위해 1인당 52만7000원씩 총 263억5000만원의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재난극복 비상총괄본부를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집중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달 말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시설이 휴관하거나 일자리 프로그램이 중단돼 소득이 끊긴 15개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참여자 9557명의 인건비에 대해 '선 지급, 후 보강' 방침을 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중에 미리 지급되는 인건비는 3월분 총 28억원 규모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향후 닥쳐올 경제적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사업이 중단된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자연생태관 해설, 도서관 기간제,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상 어르신이 참여하는 노인일자리 등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향후 닥쳐올 경제적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의 활동기간은 사업유형에 따라 최소 4개월에서 최대 1년 가량이며, 매월 1인당 14만 여원을 20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다. 이들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중단 탓에 소득원이 사라져 기본적인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참여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사업이 중단되면서 경제적 어려

/김윤상 기자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 '새단장'

체험시설 추가 조성, 안전·편의시설 보강 등

자체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재난예방에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 이번 임시휴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어린이들의 과학적 상상력을 증진하는 3개의 신규 체험시설을 추가 조성해 보다 다양한 창의적 체험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이용객의 안전·편의시설도 대폭 보강하고 있다. 체험관 내부에는 블

록볼을 통해 과학적 창의력을 표현할 수 있는 '블록 벽놀이터'와 빛을 이용해 상상력을 표현할 수 있는 '빛그림 미술놀이터' 등 2개 체험시설을 추가 조성했다.

아외에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물감을 이용해 오감을 표현할 수 있는 '오감만족 물감놀이터' 조성을 위해 현재 공인계획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조성 완료할 예정이다. 어린이 체험관 진입 도로에 교통안전펜스 설치, 체험관 내부 계단에 안전시설 설치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역점을 두고 시설을 보강했으며,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동화책 등을 비치한 북카페, 물품보관함 전자번호키, LED 홍보전광판, 대기시간 축소를 위한 무인 티켓발권기 설치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추가적으로 조성했다. 체험 프로그램 역시 보다 내실화하고 완성도를 높여 이용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농정시책 발굴 선제적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가 농어업으로도 번지는 가운데 전북도가 농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력 부족현상을 덜어주기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선다.

이번 제1회 추경 편성에는 농업인단체 방역용품 지원과 농업인 다중이용사업장 방역용품 공급 지원, 코로나19 피해 농식품 수출기업 바우처 지원을 담았다. 농산물 소비촉진 운동에는 꽃 소비촉진 운동,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를 위해 도와 교육청, 농협, 경찰청, 혁신도시이전기관, 도 공기업, 출연·출자기관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는 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제1회 추경예산 긴급편성 ▲농산물 소비촉진 운동 전개 ▲농촌 인력수급방안 마련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추진한다.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ol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